4.13 선거 RUN · RUN · RUN

## 김윤덕 예비후보 "전북의 문화 · 산업 인프라 확충"

더불어민주당(더민주당) 김윤덕 예비후보(전주 갑)는 23일 "전북의 문화, 산업, 교통 인프라 확충하겠다"며 전북 발전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날 김 예비후보는 "그동안 정부의 광역관광권 개발계획에서 소외됐던 전북을 중심으로 서부내륙권광역관광개발 사업을 추진해 광역문화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 K-Sound 소리창조클러스터조성 사업으로 첨단디지털 소리산업분야의 인프라를 새롭게 열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전주~김천, 새만금~대야 철도노선을 건설하고, 새만금~전주 고속도로를 조기에 완공해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겠다"며 "'더 잘사는 전북'을 목표로 전북의 문화, 산업, 교통 인프라를 반드시 확충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예비후보는 "전북 발전을 위한 문화, 산업, 교통 인프라 구축을 위한 밑그림은 이미 그려졌다"며 "시작한 사람이 책임져야 사업도 제대로 진행될 수 있고, 시작한 사람이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강조하며 "더 잘사는 전북, 전북의 미래를 책임지는 정치를 펼치겠다"고 밝혔다. /정영수 기자

## 정운천 예비후보 "개성공단 피해 기업 지원을"

새누리당 정운천 예비후보(전주 을)는 23일 전북중소기업청을 방문해 "개성공단 피해기업들을 원스톱으로 지원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예비후보는 "세월호 당시 관련 기관이 우왕좌왕하면서 대책마련에 실패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면서 "개성공단 피해기업들을 원스톱으로 지원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정원탁 청장은 "피해기업들에게 정책자금을 1주일만에 신속하게 지원하는 등 경영정상화를 위해 최선의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북에는 개성공단 피해기업이 7개가 존재하고 있고, 이들의 하루평균 손실액은 88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정영수 기자

## 이용호 예비후보 "99% 국민의 편에 설 터"

국민의당 이용호 예비후보(남원 · 순창 · 임실)는 23일 국민의당으로부터 공천장을 받은것에 대해 무한한 영광과 함께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며 소회를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그동안 저와 함께 국민의당 후보경선을 해오신 김원종, 이성호 후보께 깊은 감사와 함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제 지나간 경쟁은 모두 잊고 국민의당의 위대한 승리를 위해 함께 손잡고 나아가줄 것을 진심으로 희망하며 간곡하게 요청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양당체제의 기득권을 타파하겠다"며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치를 위해 창당된 우리 국민의당은 이번 총선에서 새누리당의 개헌저지선 확보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예비후보는 "1%특권과 기득권층이 아니라 99%국민의 편에 서는 정치를 실현할 것"이라며 "야권교체를 통해 2017년 정권교체의 초석을 만들 것이다"고 말했다.

/정영수기자

## 최행식 예비후보 "서민경제 실현 나설 것"

새누리당 최행식 익산시장 예비후보는 23일 후보등록을 마치면 본선 경쟁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와 함께 민생투어에 본격 나서 서민경제의 실현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예비후보는 최근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일용직 근로자들의 애환을 청취하기 위한 인력사무실 방문과 시내버스 운송사업자들을 위한 새벽 방문길에 오르는 등 유권자들과의 교감을 이루고 있다.

최 예비후보는 시내버스 회사 및 인력사무실 등을 방문해 "서민정치를 실현하겠다"는 자신의 의지를 전달했다.

서민정치 실현을 위한 방안으로 그는 많은 유권자들이 모여드는 북부시장 장날, 시내의 일원을 오가는 시내버스를 타고 다니며 민생투어에 본격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어 최 예비후보는 "현재 난맥상을 보이고 있는 2 야당의 모습이 시민들에게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학자와 지식경영을 제 1원칙으로 세우고 있는 저는 진정성 있는 공약과 실천으로 시민 여러분의 심판을 통해 꼭 필요한 익산시장으로 인정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정영수 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 김윤덕-최형재-김성주 국민의당 공격 방어전

〈더민주〉 〈김광수-장세환-정동영〉

Report 총선 중요 격전지 집중분석 - ①전주 갑을병

20대 총선을 20일 앞두고 야권의 심장부인 전북 지역 대진표가 마무리됐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도내 10개 선거구에서 물러설 수 없는 자존심 대결을 예고하며 진검승부를 위한 서막을 준비하고 있다.

더민주당 현역의원은 이춘석 · 김윤덕 · 김성주 · 김춘진 등 4명이 국민의당은 더민주당에서 넘어온 김관영 · 유성엽 현역의원 2명이 공격 선봉장을 맡고 있다.

현역 수로는 더민주당이 앞서고 있지만 전 · 현직 등 정치적 스펙트럼을 넓힐 경우 국민의당 중량감도 만만찮다.

전 장관과 국회의원, 부지사 부의장, 기초단체장 등이 2명의 선봉장 뒤를 탄탄히 받치고 있는 형국이다.

각 당 최종 후보자들은 전북에서 자신들은 물론 당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수 있는 첫 승기를 거머쥐기 위해 필사의 다짐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전주갑을병 선거구는 전북 정치 판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지역이며 현 의원과 전 시장이 맞붙는 익산갑, 돌려막기 공천 진앙지인 익산을, 현역의원이 탈락한 임실순창남원, 완무진장 2곳 등 7개 선거구는 이번 20대 총선의 최대 격전지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본보는 대한민국 야권 분열의 한 중심에 서 있는 이들 격전지를 세 차례에 나눠 분석해본다.

**전주 갑 '김윤덕 vs 김광수'**

윤동권 선후배지간으로 대결
무소속 유종근 등도 출사표

**전주 을 '최형재, 장세환 벽 넘어서나'**

당내 조직력 흡수 등이 승패 열쇠
새누리 정운천, 의외 당선 가능성

**전주 병 '김성주, '거물'을 이겨라'**

더민주 사수 vs 전북정치 부활
전주지역 전승 · 패 결정될 곳

▲전주 갑

전북 정치에서 전주 3개선거구가 차지하는 중요성은 더 말할 나위 없다.

향후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지방선거에서 파급되는 영향력이 국내 정치 야권의 중심으로 작용되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전북정치의 1번지로 불리는 완산갑은 현역인 더민주 김윤덕 예비후보에 맞서 전 도의회 의장인 국민의당 김광수 예비후보, 전 도지사인 무소속 유종근 예비후보, 전 행정부지사인 새누리당 전희재 예비후보가 금배지를 놓고 한판 승부를 벌인다.

우선 더민주당 김윤덕 후보는 중앙당이 일찌감치 단수 후보로 확정해 본선을 위한 대표주자로 내세울 만큼 도내 정치인 가운데 조직력이 안정됐다는 평을 받고 있다.

운동권 출신으로 친노 · 친문이면서 김완주 전 지사와 손을 잡고 본격적으로 정계에 입문한 김 전 지사의 측근 중 한 명이다.

이에 맞서는 전 도의장인 국민의당 김광수 후보는 김윤덕 후보와 전북대 운동권 선후배 사이. 그렇다 보니 상대를 잘 알고 있는데다 총선을 위해 일찍부터 지역구를 다지는 선거운동으로 두 후보 간 선거 중후반으로 갈수록 치열한 접전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에서는 전희재 전 행정부지사가 전주-완주 통합을 공약으로 총선에 나섰다.

무소속 후보들 도전도 관심이다. 고 김대중 대통령의 경제고문과 전 전북도지사 경험을 바탕으로 출사표를 던진 유종근 전 지사와 언론인 출신인 이범석 예비후보도 얼굴 알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주 을

전주 완산을에서는 더민주와 국민의당 후보 간 혈투도 흥밋거리지만 새누리당 정운천 후보가 가져올 '파란'에 도민과 정치권의 이목이 더욱 집중되고 있다.

2008년 촛불정국으로 농림부 장관직을 벗어던진 정 후보는 2010년 6.2지방선거 도지사후보로 나선 후 20% 가까운 지지율로 국내 정치권을 뒤흔들었다.

이후 LH유치 실패로 7일간 함거로 도민에 석고대죄해 신선한 충격을 줬으며 익산왕국축산단지 환경오염 해소에도 앞장 서는 등 10여년 가까이 지속되는 지역친화 노력에 지역민의 마음이 동요되고 있다.

이 때문에 새누리당에서는 전북 최초의 의원을 배출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으로 완산을을 꼽고 있다.

더민주에서는 최형재 후보가 이상직 현역의원을 경선에서 쓰러뜨리며 본선으로 올라와 장세환 전 의원과의 승부를 기다리고 있다.

최 후보는 이상직 의원 등의 더민주당 내 조직력 흡수와 장 전 의원의 지명도를 어떻게 넘어서느냐가 승패 갈림길로 분석되고 있다.

무소속 성치두 후보 역시 거대 정당 후보들에 밀리지 않기 위해 오늘도 지역 표심을 훑고 있다.

▲전주 병

양 당 입장에서 전주병은 반드시 승리해야 할 지역이다.

전주 선거구 3곳 중 2곳을 가져오느냐 1곳에 머무느냐, 혹은 전승 · 패가 결정될 수 있는 중요한 포석이 전주병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 솥밥을 먹었던 현역 김성주 의원과 거물의 귀환으로 불리는 정동영 전 장관의 승부가 이미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을 정도다.

김 후보에게 전주병은 재선가도 수성과 더민주당 사수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지역구인 반면 정 후보 입장에서는 전북정치 부활의 기치를 내걸고 자신의 정치 운명을 건 곳이 바로 전주병이다.

정 후보는 지난 선거운동에서 보듯 어느 정도 자신이 유리할 정도에 올라왔다고 판단될 경우 갑과을 선거구를 넘나들며 국민의당 후보 당선시키기에 전력을 다할 것으로 관측된다.

전주병은 물론 갑과을 선거구에서 국민의당 후보자가 많이 당선될수록 자신의 목소리를 당내에서 키울 수 있는데다 이를 토대로 더욱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발판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정계에 몸담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예측할 수 있다.

이럴 경우 더민주당 김윤덕-최형재-김성주의 3각 편대가 정동영-김광수-장세환 측의 공격에 어떻게 방어할 것인지도 관전포인트다.

/고민형기자

**잠적 8일만에** 잠적 8일만에 모습을 드러낸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이 23일 오후 대구 남구 본가를 나와 취재진에게 둘러싸여 있다.

## "고향기부제 도입 절실하다"

### 김영배 도의회 의장, 전국시도의회의장협에서 촉구

김영배 전북도의회 의장은 23일 전남도의회에서 열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임시회에 참석, '고향기부제 도입'을 촉구했다.

김 의장은 이날 건의문에서 "도시지역 자치단체의 수는 경제활동인구의 유입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이들을 키워낸 고향의 세수는 갈수록 줄어 지방자치단체 3곳 중 1곳은 자체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도 해결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일본의 경우 대도시권과 지방의 세금격차를 줄이기 위해 지난 2007년부터 고향세 제도를 도입했고, 2011년 대지진 당시 전년도 기부금액 보다 10배 증가하는 등 애향심 고취는 물론 지방세수를 증대시키는 제도로 운영되고 있다"고 했다.

김 의장은 "고향기부제는 기부금액의 일부를 지방세에서 공제하자던 그동안의 논의와 달리 국세인 소득세 공제로 설계하는 차별성을 담고 있다"며 "이는 현행제도 내에서 국세의 지방세이전으로 2할 지방자치를 개선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이다"고 했다.

그는 "전북도의회는 고향기부제 설계에 앞서 지난 2월 913명의 국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며 "그 결과 경제활동이 왕성한 40~50대의 경우 고향기부제가 도입되면 기부의사를 밝힌 응답자가 과반에 이르렀고, 50대는 85만원의 기부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고향기부제가 도입되고 출향민의 애향심이 조합되면 지자체와 인연을 맺는 기부행위는 귀농귀촌으로 연계돼 지방은 활력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광영 기자

## 2번 김종인… 더민주, 비례명단 36명 확정

더불어민주당이 23일 박경미 홍익대 교수를 1번, 김종인 비대위 대표를 2번으로 하는 20대총선 비례대표 추천 명단을 확정, 발표했다.

더민주에 따르면 ▲1번 박경미(51 · 여 · 홍익대 수학교육과 교수) ▲2번 김종인(76 · 더민주 비상대책위 대표) ▲3번 송옥주(51 · 여 · 더민주 홍보국장) ▲4번 최운열(66 · 서강대 교수) ▲5번 이재정(42 · 여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등이 확정됐다.

또 ▲6번 김현권(52 · 더민주 전국농어민위원회 수석부위원장) ▲7번 문미옥(48 · 여 ·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기획정책실장) ▲8번 이철희(50 · 더민주 뉴파티위원회 위원장) ▲9번 제윤경(45 · 여 · 주빌리은행 대표) ▲10번 김성수(60 · 더민주 대변인) 등이 각각 결정됐다.

이어 ▲11번 권미혁(57 · 여 · MBC방송문화진흥회 이사) ▲12번 이용득(63 · 더민주 비대위원) ▲13번 정춘숙(52 · 여 ·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14번 심기준(55 · 더민주 강원도당 위원장) ▲15번 이수혁(67 · 전 6자회담 수석대표) ▲16번 정은혜(33 · 여 · 민주통합당 상근부대변인) ▲17번 허윤정(47 · 여 · 더민주 정책위원회 보건복지 전문위원) ▲18번 이태수(57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원장) ▲19번 양정숙(51 · 여 ·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20번 유영진(57 · 대한약사회 부회장)도 각각 확정됐다.

다음 ▲21번 이수진(47 · 여 · 전국 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 ▲22번 권혁기(48 · 더불어민주당전략기획국장) ▲23번 박기영(58 · 여 · 청와대비서실 정보과학기술 보좌관) ▲24번 장경태(33 · 더민주 서울시당 대변인) ▲25번 양승숙(66 · 여 · 전국여성위원회 부위원장) ▲26번 이상헌(62 · 더민주 울산시당위원장) ▲27번 최경숙(49 · 여 ·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28번 김재종(61 · 한국외식업중앙회 이사) 등이 결정됐다.

더민주는 아울러 ▲29번 김숙희(63 · 여 · 서울시의사회 회장) ▲30번 김영웅(36 · 전국장애인위원회 대변인) ▲31번 강선우(38 · 여 · 사우스다코타주립대 교수) ▲32번 송현섭(79 · 더민주 전국실버위원장) ▲33번 박옥선(49 · 여 · 케이팝투어 대표) ▲34번 김재수(50 · 여 · 더민주 공보실장) ▲35번 남영희(44 · 여 · 더민주 중앙위원) ▲36번 이순영(58 · 여 · 부산북구의회 의원) 후보를 확정했다. /이성주 기자

## 국민의당, 비례대표 18명 후보자 발표

국민의당이 23일 신용현(55 · 여) 한국표준과학연구원장을 비례대표 1번으로 배정했다.

국민의당 천근아 비례대표추천위원장은 이날 오후 마포 당사에서 총 18명의 비례대표 후보자를 발표했다.

비례대표 2번에 오세정(63) 서울대 물리천문학부 교수, 3번에 박주현(52 · 여) 당 최고위원, 4번에 이상돈(64) 당 공동선대위원장, 5번에 박선숙(55 · 여) 당 선대위 총괄본부장을 각각 배치했다.

6~10번 순번에는 채이배(41) 좋은기업지배연구소 연구위원, 김수민(30 · 여) 청년여성 디자인벤처 창업가, 이태규(52) 당 선대위 전략홍보본부장, 김삼화(53 · 여) 전 여성변호사회 회장, 김중로(65) 예비역 육군 준장이 각각 공천됐다.

11~18번에는 장정숙 전 서울시 의원(65 · 여), 12번 이동섭 서울시 태권도연합회 회장(59), 13번 최도자 전국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 회장(61 · 여), 14번 임재훈 당 선관위 조직사무부총장(49), 15번 김임연 대한장애인 올림픽위원회 부위원장(48 · 여 · 장애인), 16번 정중규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공동대표(58 · 장애인), 17번 이미현 이화여대 특임교수(56 · 여), 18번 김현옥 부산시당 위원장(51)이 포진했다. /이성주 기자